

사회

전남 특성화高 16곳 인문계 전환

2014년까지 장성 문향고·신안 비금고·나주 영산고 등

오는 2014년까지 전남지역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16곳이 인문계 고교로 전환된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성화고 재편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년 4개교를 비롯해 모두 16개 학교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인문계고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전남지역 63개 특성화고는 모두 45개로 줄게 된다. 내년에 인문계고로 전환하는 특성화고는 장성의 문향고, 신안의 비금고, 완도 노화고, 나주 영산고다. 이들 학교는 학제에 보통과와 상업과를 두고 있는 종합고등학교로 내년 3월부터 상업과 신입생을 뽑지 않고

인문계 신입생을 선발하게 된다. 도교육청이 특성화고 재편작업을 추진하는 것은 전문계고가 대학 진학 위주로 운영돼 특성을 살리지 못하는 데다 전반적으로 신입생들이 줄어드는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 특성화고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존치되는 45개 특성화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취업중심 거점형·특화형·일반형 특성화고로 분류해 각 특성별로 집중지원한다. 도교육청은 장기적으로 이들 학교에 기숙사를 마련하고 수준높은 취업교육을 실시하는 등 지역 마이스터고로 육성할 방침이다. 산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산업과 연관성 높은 학과와 교육프로그램을 도입, 선취업 후 진학체계의 기반을 다진다. 전남지역 특성화고 취업률은 올해 기준 36.1%로 10명중 3~4명만 취업은 하고 있을 뿐 나머지는 대학진학 등을 하고 있다. 또 일부 특성화고는 신입생 지원율이 20~30%에 그치는 등 학생 채우기에도 벅거운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재학생 취업률이 낮고 대학 진학률이 높은 특성화고를 인문계고로 전환하는 것은 명실상부하게 특성화고를 운영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대 등록금 30% 줄일 수 있다”

권영진 의원, 교직원 보조성 경비만 조정해도 충분

전남대가 기성회비를 적정하게 운용하면 등록금의 30% 이상을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대가 거둔 등록금 1064억원 중 교직원들의 급여 보조성 경비로 지출된 예산은 236억원(21.4%)에 달했다. 교원(교수)에게 지급된 액수는 194억원, 직원은 34억원, 기성회 직원 8억원 등이다. 여기에 등록금 가운데 이

월, 불용액 등 순세계영여금 98억원(9.2%)까지 포함하면 최소 30.6%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는 914억원, 수업료는 150억원이다. 권 의원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공무원(5급 기준)에게 연구지원비, 행정연 구장려금 등 연간 1000만원이 넘는 돈이 보조성 경비로 추가 지급되고 있다”며 “이 기준만 조정해도 등록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애들이 밥먹자”

광주 YWCA 학생 아침밥먹기 캠페인

광주YWCA는 29일 오전 송원여고 앞에서 아침식사를 거르고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직접 만든 주먹밥과 건강음료를 나누주는 ‘2011 애들이 밥먹자’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캠페인에 여고생 900여명, 교사 및 자원봉사자 200여명 등이 참가했으며, 능협중앙회 광주지 역본부 후원과 한국석유관리원 호남지사 임직원의 봉사활동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캠페인에서

는 청소년들이 아침밥을 거르고 패스트푸드, 인스턴트식품으로 끼니를 해결하는 것은 영양의 불균형을 가져오고 건강의 위험을 가져온다는 점을 집중 홍보했다. 이옥식 광주YWCA 회장은 “바쁜 일상으로 인해 가정에서 건강한 밥상이 사라져가는 것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가정의 생명 밥상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penfoot@

“총장 선임 심사숙고 했다”

강현욱 조선포 이사장, 구성원 역량 집결 당부

학교법인 조선포 대 강현욱(사진) 이사장은 29일 “총장 후보들의 학교발전 계획과 비전, 상황인식 등 다방면의 검증 등을 통해 이사들이 당선자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이날 구성원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이사회는 4시간이 넘는 면담 및 토론회를 거쳐, 관련법과 규정 등을 살펴본 뒤 전 후보자를 총장으로 임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이사장은 또 “총장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분출됐던 많은 갈등과 아쉬움을 성숙한 지성으로 가다듬어 구성원들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지혜로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교수평의회와 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총동창회 등이 참여해 직·간접 혼합형의 총장 선거 규정을 만들었고, 추천된 훌륭한 2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임명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날 대학 해오름관에서 열린 개교 65주년 기념식에서 신홍수 총동창회장은 축사를 통해 “총장 선거에서 일부 동문들이 구성원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다”며 “동창회장으로서는 깊이 사과하며 대학이 어떠한 외부 세력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뚝뚝 뚫려나가자”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포대학교 일부 교수와 구성원들은 이사진 총사퇴와 전호중 당선자 자진 사퇴, 이사진의 총장 선출의 결단 공개를 요구하는 등 이사회의 결정을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채희중기자 chae@

광주·전남 교원침해 울들어 100건 육박

광주와 전남지역 일선 학교에서 울해 들어서만 교원침해 사례가 100건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주광덕(한나라당)의원이 교원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광주 26건, 전남 67건 등 93건에 달했다. 광주는 교사에 대한 폭언과 욕설이 20건, 수업방해 4건 등이며 전남은 욕설이 39건, 수업방해 18건, 교사 성희롱 1건 등이다. 지난 2006년부터 교육청에 정식 보고된 교원침해 건수는 광주가 13건, 전남 23건으로 상반기 발생 건수보다 더 적었다. 주 의원은 “성희롱 등 교원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대안없는 체벌금지 이후 교사가 겪는 어려움이 심각함에도 교육청이 실제 파악조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오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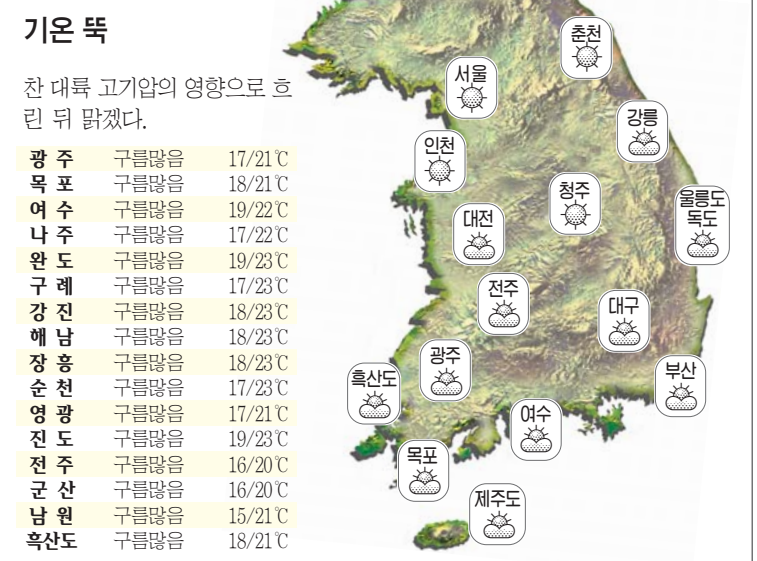


Table with weather forecast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temperature, wind, and precipitation. Includes a section for '주말·연휴 날씨' (Weekend/Holiday Weather) with a 6-day forecast.

주말·연휴 “쌀쌀해요”

내달 4일째 풀릴듯. 30일과 다음달 1일 광주와 전남·북 지역은 다소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30일 광주와 전남·북은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흐린 뒤 낮부터 맑겠다”며 “다소 쌀쌀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전망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15도~19도, 낮 최고기온은 20도~24도 분포를 보이

Advertisement for '말소리가 잘 안들린다구요?' (Can't hear words well?) featuring '국제보청기' (International Hearing Aid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판백나무가구' (Panbaeknamu Furniture) featuring various wooden furniture items like beds, wardrobes, and desks.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the company.

Advertisement for '대형홀인 행사' (Large Hall Event) at '상무지구 관광호텔 예술의전당' (Sangmu-dong Tourism Hotel Art Museum). Features wedding and banquet services with 50% discounts and other perks.